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 공동주최  
몽골 한국학 워크숍

# 언어, 문화, 사회 중심 몽골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Korean Studies Workshop in Mongolia: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2026년 5월 15일 | 오전 9:00 - 오후 5:30

몽골국립대학교 제2강의동

1층 Conference Room 110, 울란바토로, 몽골



몽골 한국학 워크숍

언어, 문화, 사회 중심  
몽골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2026년 5월 15일 | 오전 9:00 - 오후 5:30

몽골국립대학교  
제2강의동 1층 Conference Room 110  
울란바토로, 몽골

조직위원회

김종철 (서울대학교)  
바트투무르 돌마 (몽골국립대학교)  
사히야 앵흐졸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주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 (한국학전공)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

## 프로그램

### 몽골 한국학 워크숍

# 언어, 문화, 사회 중심 몽골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08:30-09:00	<b>등록</b>
09:00-09:30	<b>개회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개회사</b> 다쉬도르즈 생비렉트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김종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li><li>• <b>축사</b> 공고르 엘데브오치르/Gongor Eldev-Ochir (몽골국립대 과학대학 인문학부 학장) 바트출룬 수흐오치르/Batchuluun Sukh-Ochir (국제울란바타르대 대학원 교무처장) 다와수렌 운드라흐/Davaasuren Undrakh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학과장)</li><li>• <b>단체사진</b></li></ul>
09:30-11:00	<b>[세션 1] 한국어·몽골어 비교연구와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으로의 확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사회자:</b> 다쉬도르즈 생비렉트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li><li>• 바트후 쉐겔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석사과정), 한국어와 몽골어의 눈, 마음, 손 관련 관용 표현 비교 연구</li><li>• 바트노브 몽흐치멕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위/아래' 방향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연구</li><li>• 바트밤브 알타이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한국어와 몽골어 관형사형 어미의 대조 연구</li><li>• 사히야 영호졸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몽골과 한국의 언어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을 중심으로</li><li>• 보양터덕흐 사르네 (몽골국립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방법에 대한 현황</li><li>• 척트사이항 영흐타이왕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한-몽 대학의 비교를 통한 장학금 정책이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li><li>• 서드님더르즈 영흐치멕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학습 연구</li></ul>

---

11:00-11:30	<b>휴식 및 네트워킹</b>
11:30-13:00	<p><b>[세션 2] 몽골·한국 비교문화 연구와 문학, 상징, 인지의 교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자:</b> 푸렙자브 바트체첵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아시아학과)</li> <li>• 바트바타르 몽흐치멕 (국제올란바토르대 한국학과 석사), 몽골과 한국 설화의 비교 연구: 복두칠성 유래를 중심으로</li> <li>• 엘테네 호이가 (국제올란바토르대 한국학과 석사), 몽골과 한국 현대 문학 비교 연구</li> <li>• 에르제나 니콜라예바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러시아와 한국 전설의 비교 분석</li> <li>• 아드야자르갈 어트건돌람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19세기 말-20세기 초 몽골의 Dondogdulam 왕비와 한국의 황후의 혼례복 문양 상징성에 대한 비교 연구</li> <li>• 샬랍수렝 볼강게렐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몽골-한국인의 길이 단위 인식을 통한 인지적 사고 비교 연구</li> </ul>
13:00-14:00	<b>점심식사</b>
14:00-15:30	<p><b>[세션 3] 미디어와 정치, 역사 관점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사회와 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자:</b> 네르귀 멘드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아시아학과)</li> <li>• 옹흐투스 손짓마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유튜브 영상을 통한 국가 이미지 탐색</li> <li>• 바수렝 얼즈자르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한국 신문에 실린 몽골 관련 기사 분석 (1945-1989)</li> <li>• 강호약 시지르마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 한국과 몽골의 민주화 이행 과정 비교 연구</li> <li>• 송데브다와 옹흐암갈랑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발해의 문화 분석: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와 묘지명</li> </ul>
15:30-16:00	<b>휴식 및 네트워킹</b>
16:00-17:30	<p><b>[세션 4] 몽골 한국학 발전과 협력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자:</b> 바트투무르 돌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li> <li>• 고혁빈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요 지원 사업 안내</li> <li>• 바야가 아리운바타르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어교육학과), 왜 몽골에서 한국학을 하는가?</li> <li>• 라왓도르즈 한다르마 (국제올란바타르대 아시아학과), 한국학 이외 전공과의 협력 및 몽골 주도의 협력 모델</li> <li>• 가르드자브 바야르마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소), 디지털 전환과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재구성</li> </ul>
17:30	<p><b>폐회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트투무르 돌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li> </ul>

# 발표 요약문



세션 1

한국어·몽골어 비교연구와  
언어교육 및 사회언어학으로의 확장

사회자

다쉬도르즈 생비렉트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

# 한국어와 몽골어의 눈, 마음, 손 관련 관용 표현 비교 연구

바트후 칭겔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몽골어에서 “눈”, “마음”, “손”이 포함된 관용 표현을 비교하여 두 언어의 구조와 의미적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관용 표현은 각 언어 공동체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단순한 직역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관용 표현은 비교적 고정된 구조를 가지며, 구성 요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양 언어의 관용 표현을 수집하고 구조적·의미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아울러 사용 맥락과 화용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눈”, “마음”, “손”과 같은 신체 부위 관련 표현은 감정과 인지, 행동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 언어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언어학적·문화적 의의를 고찰한다. 또한 실제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몽골어 관용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

## ‘위/아래’ 방향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연구

바트노브 멩흐치멕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본 발표는 한국어와 몽골어에 나타난 ‘위(상)/아래(하)’ 수직 방향 은유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인간은 보편적인 신체 경험을 바탕으로 ‘위’를 긍정, 권위, 증가로, ‘아래’를 부정, 복종, 감소로 개념화하지만, 구체적인 언어에서는 각 민족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에 따라 인지적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양국 언어적 은유가 어떻게 각 사회의 가치관과 인지 체계를 반영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몽골어의 ‘дэ- (위)’와 ‘до- (아래)’ 어근이 지닌 독특한 인지적 특징을 한국어와 대조하여 논의할 것이다. 몽골은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하늘’이라는 자연적 수직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부모’나 ‘임금’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수직성을 중시한다는 점을 비교 포인트로 잡고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몽골어 ‘위/아래’ 단어 사용 빈도를 대조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향 은유).

---

## 한국어와 몽골어 관형사형 어미의 대조 연구

바트밤브 알타이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학위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관형사형 어미를 대상으로 두 언어 간 대응 양상을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대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론적 논의에 치중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말뭉치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대상은 한국어의 ‘-(으)ㄴ, -는, -던, -었던, -(으)ㄹ’ 등 관형사형 어미 체계와 몽골어의 тодогон холбох нөхцөл 전반이며, 한국어 “모두의 말뭉치” 중 신문 말뭉치와 몽골 과학아카데미가 수집 중인 신문 말뭉치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 의미, 기능 및 사용 양상이 실제 언어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두 언어 간 구조적 대응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몽골과 한국의 언어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사회언어학을 중심으로

사히야 옹흐졸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몽골과 한국의 언어정책과 언어계획을 비교·분석하며 Cooper(1989)의 삼분 언어 계획 모형-지위 계획(Status Planning), 말뭉치 계획(Corpus Planning), 습득 계획(Acquisition Planning)을 분석 틀로 삼아 몽골어와 한국어의 언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Cooper(1989)의 언어 계획 삼분 모형을 이론적 틀로 삼아 몽골어와 한국어의 언어 정책 구조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몽골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몽골과 한국의 언어 정책은 어떠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두 국가의 언어 정책 차이는 어떤 사회언어학적 요인에서 비롯되는가? 셋째, 몽골은 한국의 언어 정책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documentary analysis)과 정책 비교 분석(comparative policy analysis)을 병행한다.

---

##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방법에 대한 현황

보양턱터흐 사르네  
몽골국립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몽골 내 한국어 교육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원 양성은 대학 내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 전공 과장과 세종학당재단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 온라인 교육, 워크숍 등이 병행되어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원 자격 기준과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적이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방법과 평가 역량에 대한 요구도 전차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몽골의 교육 환경을 반영한 표준화된 교원 양성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몽골 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 한-몽 대학의 비교를 통한 장학금 정책이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척트사이항 옹흐타이왕  
몽골국립대 교육학 박사과정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 대학을 대상으로 장학금 정책이 학업 성취, 학습 참여 및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혼합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학점(GPA), 장학금 유형, 학생 유지율 등의 정량적 자료와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 틀로는 자기결정성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과 학습참여이론을 기반으로 재정적 지원이 학습 동기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또한 양국 장학금 제도의 구조적 차이가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장학금 정책 설계 및 학업 중도탈락 감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학습 연구

서드넘더르즈 엔지니어링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최근 OpenAI에서 개발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의 등장은 교육 분야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도 그 활용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몽골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 유학을 주요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성적은 대학 진학 및 장학금 수혜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이 쓰기 영역에서 높은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제한된 연습 기회로 인해 기대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생성형 AI 챗봇을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학습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즉각적인 피드백과 함께 자기 주도적이고 반복적인 연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AI 챗봇 활용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과 학습 동기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션 2

**몽골·한국 비교문화 연구와  
문학, 상징, 인지의 교차**

사회자

**푸렘자브 바트체렉**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아시아학과

---

## 몽골과 한국 설화의 비교 연구: 북두칠성 유래를 중심으로

바타바타르 몽흐치멕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

본 연구는 몽골과 한국의 구비문학에 나타난 '북두칠성의 유래'에 관한 설화와 민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여, 양국 문화에 내재된 사유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양국 설화 모두 인간이 영웅적 행위나 숭고한 희생을 통해 하늘로 승천하여 별이 되는 '천상화'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몽골 설화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 의형제를 맺고 외부의 적에 맞서는 공동체적 결속력과 영웅성이 강조된다. 또한 인물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별로 변신하며, 동물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여 인간 자연 동물이 공존하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 설화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효 사상과 가족애가 핵심적으로 나타난다. 인물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천상계의 절대자에 의해 사후 별로 봉해지며, 이는 인간 관계의 윤리성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북두칠성 유래 설화는 공통된 서사적 모티프를 지니면서도, 전개 방식과 의미 체계에서 양국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몽골과 한국 현대 문학 비교 연구

엘테네 호이가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

본 연구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B. 첸두의 『강 건너편의 막다른 봄』을 비교 분석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우화적·은유적 서사와 사회 비판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2017년 개정판을 통해 몽골 독자들에게 소개되었으며,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해 권력 구조와 집단 내 억압, 순응과 저항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우화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이 우화적 형식을 채택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사회·이념적 환경 속에서 현실 비판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고찰한다. 또한 작가의 생애와 창작 배경, 작품의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비교문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몽골 현대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우화 문학이 지니는 비판적 기능과 문학사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

## 러시아와 한국 전설의 비교 분석

에르제나 니콜라예바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는 러시아와 한국의 전설을 비교·분석하여 서사적 특징, 주요 인물 및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양국의 전설은 역사적·자연적·정신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독특한 세계관을 반영한다. 또한 각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숲의 정령과 산신과 같은 자연 관련 존재들이 문화적 세계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해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초자연적 존재 간의 관계라는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 전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한다. 전설 속 상징과 서사 구조를 함께 검토하여 각 문화의 정체성과 정신세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 19세기 말-20세기 초 몽골의 Dondogdulam 왕비와 한국의 황후의 혼례복 문양 상징성에 대한 비교 연구

아드야자르갈 어트건돌람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본 발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배경으로 몽골과 한국 왕실 여성 혼례복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몽골 왕비 Dondogdulam과 한국 황후의 혼례복을 중심 사례로 삼아, 각 문화권에서 혼례복이 지니는 의미와 기능을 고찰한다. 이 시기는 두 나라 모두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던 과도기로, 왕실 문화 역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실 여성의 혼례복은 단순한 의복을 넘어 왕권의 권위와 신분 질서,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였다. 또한 혼례복 문양은 부귀와 장수, 번영을 기원하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왕실의 위엄과 신성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나라 혼례복 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문화적 가치관과 미의식, 그리고 왕실문화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 몽골-한국인의 길이 단위 인식을 통한 인지적 사고 비교 연구

샤랍수렝 불강게렐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길이 단위 인식을 중심으로 몽골과 한국의 인지적 사고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양국의 측정 단위 활용 방식은 인지적 사고의 지향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몽골은 '알드(ald)', '토호이(tokhoi)'와 같이 신체 부위를 매개로 한 전통적 단위를 보존해 왔다. 이러한 체계는 생활 밀착형 측정 방식으로서 길이를 직관적·체험적으로 파악하는 데 용이하며, 결과적으로 경험과 감각에 기반한 유연한 사고 양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척(尺)', '치(寸)' 체계를 거쳐 현재는 미터법 중심의 표준화된 계량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환경은 길이를 수치화하고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사고가 기준 중심의 분석적 성향을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길이 단위 인식 차이는 단순한 도량형의 차이를 넘어, 문화적 배경이 인간의 인지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특정 측정 단위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정 범주와 인지 영역을 통합한 심층적인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션 3

미디어와 정치, 역사 관점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사회와 문화

사회자

**네르귀 멘드**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아시아학과

---

## 유튜브 영상을 통한 국가 이미지 탐색

영호투스 순짓마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과정

한 국가의 이미지는 더 이상 정부 간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인 유튜버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이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유튜버들 역시 이에 포함된다. 유튜버는 구독자 수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몽골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해당 유튜버가 어떤 틀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 신문에 실린 몽골 관련 기사 분석 (1945-1989)

밤바수렝 얼즈자르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언론에 보도된 몽골관련 기사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이 언론 기사를 통해 몽골을 어떠한 구조 속에서 재현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현대 역사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한국과 몽골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문헌 자료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시기의 한국신문 기사를 통해 본 몽골에 대한 연구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몽골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13세기부터 한국과 몽골 연구자들이 폭넓게 다방면에서 연구해 왔다. 또한 중세 양국관계사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세기 한-몽 관계사 연구 즉 구체적으로 1945-1989년 간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한국 언론기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신문에 나온 몽골에 대한 기사를 연구하는 것은 몽골과 한국간의 관계사뿐 아니라, 몽골역사와 관련된 연구에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

## 한국과 몽골의 민주화 이행 과정 비교 연구

강호약 시지르마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과 석사

본 연구는 한국과 몽골의 민주화 이행 유형을 비교하고, 특히 집권 세력과 야당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는 시민과 대중의 오랜 민주화 투쟁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당국과의 타협을 통해 민주화로 이행하게 되었다. 반면 몽골의 민주화 운동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소련 붕괴 이후 경제 위기라는 외부 요인과 맞물려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당국과 야당은 상호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고, 두 나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민주화 이행을 겪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이전 정치 상황의 차이로 인해 몽골에서는 민주화 이행 과정 중에 시행된 민영화 정책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 정권의 차이와 민주화 단계의 차이가 두 나라의 민주화 모델에 차이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

## 발해의 문화 분석: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와 묘지명

송데브다와 영호암갈랑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박사과정

7세기부터 10세기 동북아시아 정치·문화사에서 발해(渤海, 698-928)는 고구려 전통을 계승한 다민족 국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발해의 역사·문화에 관한 문헌 자료는 제한적이어서, 고고학적 유물과 묘지명이 당시 사회·문화·정치 체제를 연구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는 발해 제3대 왕 문왕(文王)의 둘째 딸 정혜공주(貞惠公主)와 넷째 딸 정효공주(貞孝公主)의 묘와 묘지명을 분석하여 발해 문화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공주의 무덤에서는 돌사자가, 정효공주의 무덤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어 발해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초상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두 무덤의 축조 방식과 시차를 통해 고구려 전통과 당나라 문화가 발해 장례 문화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해 문화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문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션 4

몽골 한국학 발전과 협력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바트투무르 돌마**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

---

##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요 지원 사업 안내

고혁빈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본 발표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해외 대학 내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및 교원고용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대학원생 장학지원 및 펠로십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KF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대학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 왜 몽골에서 한국학을 하는가?

바야가 아리운바타르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어교육학과

몽골에서 한국학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배경이다. 몽골과 한국은 오랜 교류를 통해 문화적 유사성과 상호 이해의 기반을 형성해 왔다. 둘째, 한국의 발전 모델과 한국 및 한국어의 위상이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경제·교육·문화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어 또한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몽골에 중요한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다. 양국은 교육,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몽골에서의 한국학은 단순한 수용을 넘어, 몽골의 관점과 맥락에서 한국을 재해석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 한국학이외 전공과의 협력 및 몽골 주도의 협력 모델

라와도르즈 한다르마  
국제울란바타르대 아시아학과

한국학은 다른 전공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분야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IT와 협력하면 한국 문화를 디지털 콘텐츠로 확산할 수 있고, 경영학과는 한류 산업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연구할 수 있다. 관광학과 협력하면 전통문화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고고학과와의 협력은 고대 역사와 문화유산 연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다. 이러한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의 전공을 존중하고, 공동 프로젝트와 세미나 등을 통해 실제 협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몽골이 주도하는 협력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 몽골은 동북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 개발, 환경 보호, 문화 연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 수 있다. 특히 한국학과 연계하면 교육, 문화 교류, 공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네트워크 강화, 인재 양성, 국가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면 몽골은 지역 협력의 핵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

## 디지털 전환과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재구성

가르드자브 바야르마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소

디지털 전환은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논문요약, 번역, 자료분석 등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 근거 확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특히 몽골의 한국학 연구 환경에서 기회로 작용한다. 그러나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류와 왜곡을 초래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AI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AI시대의 한국학 전문가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맥락적 이해와 의미 재구성을 수행하는 해석자이자 검증자로서 기능한다. 한편, 온라인 교육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 한국학 접근성을 확대하고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학습의 지속성과 심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한국학은 AI 활용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교육 모델을 통해 질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 참가자 소개



---

**가르드자브 바야르마**(Garidjav Bayarmaa)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몽골과학아카데미 국제학연구소에서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몽골 문화 협력: 세종학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몽골에서 개최된 “아시아학 학술대회”에서 해당 연구를 발표하였다.

**강호약 시지르마**(Gankhuyag Shijirmaa)은 국제올란바타르대 한국학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한국어, 한국 사회, 한국 역사, 한국 정치, 그리고 몽골과 한국 간 문화 교류이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 속 민주화 이행 과정의 대해 비교 연구했으며, 앞으로 한국학 분야의 여러 주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고혁빈**(Hyuk-Bin Koh)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과장이다.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총괄하며, 캐나다 및 동북아 지역 내 한국학 교수직 설치와 교원고용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철**(Jong-Cheol Kim)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2011년부터 KF 글로벌 e-스쿨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을 이끌며, 아시아와 유럽 14개국 26개 대학에 200개 이상의 정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ICAS 국제도서상 한국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미국 버클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네르귀 멘드(Nergui Mend)**는 2000년 몽골국립대 국제관계대 학사과정을 국제교류 및 한국어통번역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2003년에는 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에서 ‘몽골비사에 나타나는 몽골어 및 한국어 수사법 비교’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에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섬유공학 전공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공 기본 어휘 선정 연구: 말뭉치를 중심으로’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몽골국립대 외국어문화대,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외국어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쳐 왔으며, 현재 몽골국립과학기술대 외국어대 아시아학과에서 근무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한국학, 언어학 및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다쉬도르즈 생비렉트(Dashdorj Sainbilegt)**는 몽골국립대 과학대학 인문학 분야 아시아학과 교수이다. 몽골국립대에서 언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교육학, 한국학, 한국어문 교육학이며, 관련 주제로 다양한 교재 개발과 학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언어습득론, 한국문학개론, 비교언어학, 한국정치외교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하여 연구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라왓도르즈 한다르마(Lkhagvadorj Khandarmaa)**는 몽골국립대 아시아학과에 재직 중인 강사이다. 국제올란바타르대에서 한국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몽골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몽골과 한국 문학, 민담 비교 관련 주제로 다양한 학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기초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하여 연구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

**바야가 아리운바타르**(Bayagaa Ariunbaatar)는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어교육학과에서 한국어와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해 왔다. 또한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인 “SODAR” 교수법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언어 습득 방법을 연구·실천하고 있다. 몽골 한국어교육학회 회장으로서 다양한 학술 및 교육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교수법, 한국어 어휘 교육과 TOPIK 시험 분석이다.

**바트노브 몽흐치멕**(Batnov Munkhchimeg)는 국제울란바타르대 언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언어학적 통찰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어와 몽골어에 나타나는 ‘위/아래’ 방향 은유(Oriental Metaphor)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그 민족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본 연구는 양국 언어 사용자가 방향 지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념화하는지 체계적으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신체 경험 속에 숨겨진 각 문화 고유의 인지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몽골의 자연적 수직성과 한국의 사회적 수직성이 속담과 관용 표현에 투영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인지 중심의 한국어 교수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측의 선행 연구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의 논리적 근거를 보완할 예정이다.

---

**바트바타르 몽흐치멕**(Batbaatar Munkhchimeg)은 이데르대학에서 한국어교육학 학사를, 국제울란바타르대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 학위 논문 「한 몽 설화의 비교 연구 복두칠성 유래를 중심으로」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적 관계와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내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역량을 쌓았다. 또한 한국어 교사로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을 연계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향후 양국 간 학술 교류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트밤브 알타이**(Batbyamba Altai)는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어교육학과에 재직 중이며, 동 대학 언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몽골어와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 대조 연구”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 박사과정(2019-2021)을 수료하였으며,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예비 발표 주제는, “역번역 과제 활동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육 연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였다.

**바트투무르 돌마**(Battumur Dulmaa)는 몽골국립대 과학대학 인문학 분야 아시아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몽골국립대에서 한국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학, 한국학, 젠더 연구이며, 관련 주제로 다양한 학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한국어, 한국 경제, 통번역, 한국의 문화외교 등의 과목을 담당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하여 연구의 확장고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

**바트후 쟁겔마**(Batkhoo Tsengelmaa)는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눈, 마음, 손”이 포함된 한국어와 몽골어의 관용 표현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각 민족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반영하며,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두 언어의 관용 표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의미적 특징과 문화적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특징을 바탕으로 언어학적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앞으로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언어학 및 문화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밤바수렝 얼즈자르갈**(Byambasuren Olzjargal)은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문화대학 한국학 학사(2006), 한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정치학과 수료 후, 현재 몽골국립대학교 아시아학과 한국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연구 및 학술활동으로는, *충선왕과 여-몽 교류/석사논문* (2010), *The King Chungseon and Relations between Koryo and Mongolia*, 동양고전연구원 공동연구 (2011), *한국어 교안 및 수업사례*, 제8회 세종학당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2016) 한국어 교안작성 요령 및 온라인 자료 활용에 관하여, *재몽한국어교육자대회*(2018) 원-고려 관계에 충선왕의 영향력, 몽골 2018한국학학술회(2018), 13세기 여-원 문화종교관계: 충선왕 활동을 중심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 30주년 학술회의 (2021), *고려-몽골 관계의 특수성*, 제1회 성균관대-몽골국립대 대학원생 심포지엄 (2025) 등이 있다. 현재는 “한국 신문에 실린 몽골 관련 기사 분석 (1945-1989)”으로 박사논문을 준비중이다.

---

**보양턱터흐 사르네**(Buyantogtokh Sarnai)는 몽골국립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 교육학과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몽골국립대학교 산하 울란바토르2 세종학당에 한국어 교원으로 재직하며 교육 현장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몽골 내 한국어 교원 양성 체계로, 특히 교원 전문성 개발, 교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그리고 현지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론과 실재를 연계한 체계적인 교원 양성 모델 구축을 통해 몽골 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히야 앙흐줄**(Sakhiya Enkhzul)은 현재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한국어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언어 계획 이론을 통한 몽골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좀 더 심화하여 나중에 한국 학술지에 게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세종학당을 통해 언어 정책과 보급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샤랍수렝 볼강게렐**(Sharavsuren Bulgangerel)은 몽골국립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현재 연구는 몽골과 한국 사람들이 길이 단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인지적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몽골의 전통적인 신체 기반 단위와 한국의 비교적 체계적인 단위를 중심으로 두 문화 간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측정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문화와 교육 환경이 인간의 사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서드넘더르즈 엔흐치멕(Sodnomdorj Enkhchimeg)**은 몽골국립대 한국어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한국어 쓰기 수업의 실험 및 효과: 몽골국립대학교 전공생을 대상으로”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교육에 AI 챗봇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과 학습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를 심화하여 한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몽 및 몽-한 통번역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송데브다와 엔흐암갈랑(Sundevdavaa Enkh-Amgalan)**은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언어문화학과 조교수이자 몽골국립대 한국학 박사과정 재학생이다. 현재 “거란과 발해 관계”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며, 동북아 역사와 문화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선행 연구와 한국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발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발해는 거란 세력의 도움으로 건국되었으나, 결국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앞으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발해 연구를 심화하고, 학술지 게재를 목표로 하며, 학생들에게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국제적 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아드야자르갈 어트건돌람**(Adiyajargal-iin Otgondulam)은 2022년 국제 울란바토르대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통번역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본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이다. 현재 Scholarship Academy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의 언어, 문화, 예술, 사회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몽골과 한국의 전통 문화 비교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왕실 복식과 그에 나타난 상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몽골과 한국 왕실 여성의 혼례복 문양을 중심으로, 문화적 의미와 상징 체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전통 복식이 지닌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에르제나 니콜라예바**(Erzhena Nikolaeva)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문화 연구, 민속학,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적 신념 체계이다. 특히 전설에 나타난 세계관과 문화적 정체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문화가 자연과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는 러시아와 한국 전설에 나타난 자연과 영적 존재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전설의 서사 구조와 상징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엘테네 호이가**(Erdene Khuyag)는 한-몽 현대 문학 비교 연구로 국제울란바타르대 한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현대 한국 문학과 매년 이산문학상 수상작들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최고의 작품들을 비교 분석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 문학의 경향과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

**앵흐투스 순짓마**(Enkhtugs Sunjidmaa)는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한국 국가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튜브 영상을 통한 국가 이미지 탐색: 몽골 유튜버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시청자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유튜버가 어떤 범위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외교, 특히 디지털 외교 정책 제언 및 권고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향후 학위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심화 학습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척트사이항 앵흐타이왕**(Tsoigtsaikhan Enkhtaivan)은 몽골국립대 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학생개발처에서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등교육 정책, 학생 개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다. 특히 장학금 정책이 학습 동기, 학습 참여 및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향후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성공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재정지원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푸렙자브 바트체첵**(Purevjav Battsetseg)은 몽골과학기술대 외국어대학 아시아학과에 강사로 재직 중이다. 몽골인문대에서 한국어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배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학, 한국학, 한국어 교육이며 관련 주제로 다양한 학술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한국어 및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하여 연구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KOREA **KF**  
FOUNDATION